

'군산 축구 영웅 오토바이 채금석' 기획공연

군산예총, 축구 원로 채금석 일대기 창작 가무극으로 펼쳐 색다른 감동 선사

제6회 기획공연 '군산 축구 영웅 오토바이 채금석'이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군산예총(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 군산지회)이 주최한 이번 기획공연은 군산 출신 인물의 일대기를 연극, 음악 등을 활용한 다양한 예술이 어우러진 창작 가무극으로 표현해 색다른 예술적 감흥을 전했다. 이번 기획공연의 주인공은 군산의 축구 전설 채금석이었다. 채금석은 임피군(현 군산시 성산면)에서 태어난 우리나라 축구의 제1세대 원로로, 일제강점기 당시 경성축구단과 평양축구단에서 활동하면서 빠른 돌파력으로 '오토바이 채'라는 별명을 얻었다. 이후 고향인 군산에서 축구 감독과 축구 교육을 하며 축구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이번 기획공연은 인물의 일대기를 창작 가무



제6회 기획공연 '군산 축구 영웅 오토바이 채금석'이 군산예술의전당 대공연장에서 시민들의 뜨거운 관심속에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다.

극으로 색다르게 풀어내 볼거리와 즐길거리를 제공하면서, 군산 내 다양한 문화예술 단체 역량을 결집해 수준 높은 예술 작품으로 탄생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군산예총 황대욱 회장은 "앞으로도 다양한 지역 인물의 일대기를 색다르게 선보여 흥미를 돋우고 잊혀져가는 지역 출신 위인을 알리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군산=김만호 기자

제7회 순창문화원의 날 행사 성료

초청 강연 · 지역문화 공로자 6명 감사패 수상 등 진행

순창군이 주최하고 순창문화원(원장 전인백)이 주관한 제7회 순창문화원의 날 행사가 지난 달 28일 장애인체육관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번 행사는 순창문화원이 그동안 추진해 온 향토문화 교육, 사료 발굴, 문화예술 활동 성과를 군민과 함께 공유하는 자리로, 매년 지역문화의 가치를 재조명하는 의미 있는 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식전공연을 시작으로 초청 강연, 기념식, 오

찬 순으로 진행됐으며, 군민과 문화예술 단체, 지역 문화계 인사 등 100여 명이 참석해 순창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함께 살펴보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특히 성공회대학교 한재훈 대우교수가 '예(禮), 지금도 필요할까?'를 주제로 진행한 강연은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기념식에서는 지역 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자들에게 표창이 수여됐다.



설기호 대한시조협회 순창군지회장이 순창군수 감사패를, 박영순 회원이 순창군의회 의장상을, 이영화 회원이 순창문화원장상을 각각 수상하는 등 총 6명이 지역 문화 활성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순창=이영원 기자



전주대 문화융합대학, 헌혈 캠페인 전개

전주대학교(총장 류두현) 문화융합대학 학생회는 최근, 교내 예술관 앞 주차장에서 전복혈액원과 함께 '우리 같이 헌혈하자'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이날 캠페인에는 학생과 교직원들을 비롯한 대학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며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장은성 기자

제49기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식 개최

남원시는 최근, 남원시민도예대학에서 수강생 62명과 남원시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제49기 남원시민도예대학 수료식'을 개최했다. 도예대학은 지난 26년간 입문, 물레, 응용, 창작에 이르는 체계적인 도예교육 시스템을 운영하여 약 2,500명의 시민 도예가를 배출, 올해 제49기 수료생들은 도자기 성형, 장식기법, 유약과 소성 등 실기 중심 교육을 통해 일상 속에서 예술을 향유하고 창작 역량을 키우는 의미 있는 성장을 이루었다. 이날 수료식에서는 우수 수강생 시상과 수강생들의 창작 성과를 선보이는 품귀는 시민도예가 특별전으로 수강생 작품 70여 점이 전시되었다. 도예대학 학장인 최경식 시장은 "도예대학이



지난 26년간 시민들이 예술을 배우고 창작하며 남원의 도자문화를 함께 성장시켜 온 큰 원동력이 되어왔다"며, "앞으로도 교육역량 강화, 장작가마 중심의 도자문화 특성화, 국내외 교류 확대 등을 통해 남원이 도자와 문화예술의 중심 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 장편소설 연재 - 강패와 굿패

3부 '강패와 경찰' (3)

어떻게 죽은 거죠?

- 오 상 근 (본보 경제부장) -

붉은여우는 여우가 아니라 능구렁이다. 스리슬쩍 비껴나가고 있었다. "자네가 만났던 그 시각 이후, 그 자리에서 박창수는 주검으로 발견되었어." "뭘라고요! 그럼, 차안에서요!" 붉은여우는 깍지 낀 손으로 턱을 받친 채 동식의 표정과 몸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었다.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자네가 죽었다고 단정하는 건 아니야. 어때? 자네 거처를 보여줄 수 있나?" 상황이 이해되지 않았다. 동식은 시목동 계곡 박창수의 차안에서 대화를 나눈 뒤 차 밖으로 나와 차문을 닫고 그대로 동식의 아우디로 와서 차를 끌고 그 장소를 떠나버렸다. 그것 말고 다른 행동은 없었다. 동식은 꿀릴 게 없다. " 좋습니다." 동식은 경찰차에 탔고 차는 경찰서를 빠져 나와 동식의 거처인 모텔로 향했다. "어떻게 죽은 거죠?" 가장 궁금한 부분이다. 박창수가 차안에서 죽었다고 했다. 왜 차안에서 죽었을까. 어떻게 죽은 것일까.



경찰은 동식의 거처와 동식의 아우디를 수색했지만 건질 만한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예전 같으면 야구방망이라도 하나 트렁크에 싣고 다닐 테지만 지금은 연장을 쓸 나이가 지난 터라 말끔했다. 붉은여우는 아무렇지도 않은 얼굴을 했지만 실망스러웠을 것이다. "일단은 자네를 풀어줄 거야. 하지만 우리가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 고창 말고 다른 데로 움직일 때는 연락을 줘야 해. 물론 출국금지야 시켜놓을 거야." 붉은여우는 정나미 떨어지는 말을 동식과 함께 모텔에 톱 던져놓고 떠났다. 경찰들이 떠난 빈 공간은 일시에 의문부호로 가득 채워졌다. 밝은 대낮에 납뽀락을 맞는다는 말이 이런 상황을 말하는 건가. 박창수가 죽다니 믿기지 않았다. 누가 무슨 이유로 그를 죽였을까. 게다가 동식이 박창수를 만났던 그 장소 그 차안에서 죽었다니. 째깍이 동식이 살인범으로 몰리기 딱 좋은 상황이다.

그날 어둠이 몰려오던 그 시각 그 장소에는 동식과 박창수 이외에 다른 사람은 없었다. 적어도 동식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다. 동식이 그 자리를 떠난 사이에 일이 벌어졌단 말인가. 다른 사람 걱정할 때가 아니다. 박창수를 죽이지 않았다는 사실을 증명해야 한다. 어떻게 증명해야 할까. 그날 박창수와 대화를 나눴지만 약속도 하지 않았다. 박창수 몸에 손도 대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리한 게 뭐가 있을까. 봉투! 돈이 들어 있던 봉투. 오천만원이 들어 있던 봉투. 그걸 붉은여우에게 맡겨줘야 할까. 만약 그 봉투가 없어졌다면 오히려 더 나를 의심하지 않을까. 그나저나, 박창수가 제의했던 일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10억 원은 건달 강동식에게도 큰돈이다. 군침이 도는 일이 아닐 수 없었다. 복잡하게 머리 굴리지 말고 딱 눈감고 박창수의 제안을 들어줬다면……. 이제 물거품이 되었다. 박창수의 청부는 원래 동식이 해야 할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허망한 꿈에 지나지 않았다. 차라리 박창수를 만났을 때 오천만원이라도 받아올 걸……. 아니다. 돈을 받아오지 않은 건 잘한 일이다. 그럼, 잘한 일이지. 박창수가 죽었으니 오히려 차라리 잘된 일일까. 동식은 청통건설로 전화를 넣으려다가 오정태의 전화번호를 눌렀다. "형님, 죄송합니다만, 청통 건은 일을 못 할 것 같습니다요." "뭘! 이 자식이. 너 대체 왜 그래? 너 많이 변했구나. 무슨 일 있어?" 오정태는 콩 튀듯 입에서 파발춤을 발사해냈다. 귀가 따가웠다.

전북의 역사 · 문화 유산

옛 전북의 구심점

전라감영

전라감영은 전라감사가 근무하는 관이라는 뜻으로, '완영'이라고도 불렀다. 완영이란 전주의 옛 지명 '완산'에서 나온 말이다. 조선시대 전라도는 지금의 전라남·북도와 제주도까지 포함한 지역으로, 이 모두를 총괄한 지방통치관서 전라감영은 조선왕조 500여년 내내 전주에 자리했다. 일제강점기에 들어와 전라감영 자리에 전북도청이 들어섰고, 2005년까지 전북 도청의 중심이 되었다. 전북도청은 행정만이 아니라 전북의 역사와 문화를 끌어온 전북의 구심점이자 권인자였다.



전라감영의 재창조

전라감영 복원 논의는 2005년 전북도청이 신시가지로 이전하면서 본격화돼, 2009년 전라감영 복원추진위원회가 구성됐고, 2014년 전라감영 복원 재창조위원회가 결성됐다. 복원을 앞두고 10여년간 계속된 지난한 논의의 핵심은 복원의 범위와 옛 전북도청의 근대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 문제였다. 복원 범위는 전제복원, 부분복원, 상징복원으로 나뉘었고, 옛 전북도청의 가치는 김영터의 중추적 역사에서 어느 역사를 택하느냐 하는 문제였다. 결국 감영의 중심건물인 감사의 집무처인 선화당을 비롯한 전라감사 영역을 복원하는 것으로 결정돼 2015년 마침내 옛 전북도청을 철거하고 2020년 동편 부지에 감영 건물을 복원했다. <글: 전주시 제공>



전주매일 캠페인